

##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과 대운·세운분석을 통한 진로상담 가능성 탐색

하은희, 김성봉\*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 A Study on Searching Possibility of Career Counseling through Meungri-Saju Analysis, Wealthy Structures, Deawoon, Saewoon for Failed Self-employed

Eun-Hee Ha, Sung-Bong Kim\*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과 대운·세운분석을 통해 명리학을 진로상담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있었다. 사업적성에 해당하는 재성(財星)의 강·약을 통해 Holland 흥미·적성검사를, 10년의 환경인 대운(大運)과 1년의 환경인 세운(歲運)에서 일간(日干)에게 가장 필요한 용신(用神)의 합(合)·형(刑)·충(沖)의 변화로 인한 길(吉)·흉(凶)을 통해 Super가 언급한 개인의 처해진 환경을 파악하였다. 또한 직업공을 알아 볼 수 있는 월지(月支)의 변화를 살펴 직업변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은 약한 사주이며,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합·형·충 되어 흉하게 작용하였고 그로 인해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현행 서양검사 지 위주의 진로상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흥미·적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환경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진로상담을 위한 명리학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Meungri-Saju analysis concerning career counseling. Initially, we searched for 'fortune quality' of self-employed people whose works went out of business., We investigated what was weak or strong of 'fortune quality' because it gives you interests and talents as Holland says, and then we checked their one-year and 10-year personal circumstances, so called Saewoon, Deawoon that implies your own private circumstances as Super says. In addition to this, we examined Woulgi because it predicts condition of change of the jobs.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ere failed businesses that had serious weaknesses in wealth structures. In addition, Saewoon, Deawoon were terrible conditions because of Yongshin' Hap, Hyung, Chung.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y had to be gone out of business. It is clear that you should check your wealth structure and Saewoon, Deawoon when you open your business. This study concludes that Meungri-Saju analysis is effective as a new model of career counseling.

**Keyword** : Career counseling, Holland, Super, Meungri-Saju analysis, Self-employed, Saewoon, Deawoon, Yongshin

#### 1. 서 론

우리는 흔히 하고자 하는 일이나 사업에서 좋은 결과

를 내지 못했을 때, “운대가 안 맞는다.” 고 하며,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내면,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한다. 이는 사람이 명(命)이 좋고 훌륭한 격(格)을 이루었다고 하더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ng-Bong Kim(Jeju National Univ.)

Tel: +82-10-3639-0009 email: edutopia@jejunu.ac.kr

Received July 10, 2018

Revised (1st August 14, 2018, 2nd August 31, 2018, 3rd September 19, 2018)

Accepted October 5, 2018

Published October 31, 2018

라도 시기를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명성을 떨칠 수 없다는 말이다 [1].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명리학적 용어들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사상으로서의 역학(易學)인 명리학을 단지 무속인들이 신(神)이 들려 점을 치는 행위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오랜 역사와 경험과학의 결과인 명리학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실증적 보편성의 원리”라 평가되는 임상 통계학적 검증방식의 논리에 밀려 미신이나 허황된 학문으로 취급받아 왔다. 21세기는 융합과학(fusion science)의 시대다 [2].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최근에는 물리학의 발전과 호흡을 같이하며 동양사상의 원리와 논리체계가 새롭게 조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특히나 상담분야에 응용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명리학의 십성(十星)의 개념을 통해 에니어그램의 성격심리를 비교하였고, [3] 정신분열증(Schizophrenia)과 같은 정신병리 현상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4]. 뿐만 아니라 명리학과 서양의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flow)이론과 함께 사주의 십성에 의해 학습몰입의 중요한 변화작용이 일어난다는 서양심리를 융합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5]. 이러한 연구들은 명리학이 과학적이며 실증적 학문임을 입증하고 있다.

명리사주분석시, 사주원국(四柱原局)에서는 인간의 생·노·병·사와 더불어 직업적성, 흥미, 성격뿐만 아니라 개인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초기의 명리학 연구들은 문헌 중심인 반면, 최근에는 문헌을 바탕으로 실증적 검증을 통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동양학이나 미래 예측학과에서 서양의 상담이론을 접목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6].

명리학을 활용한 선천적성검사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김기승 [7]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양 진로상담 검사지들의 문제점들을 초월하여 조기부터 진로와 직업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명리사주분석이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타고난 생년·월·일·시 등 출생정보를 가지고 인간본성에 깔린 성격(personality), 흥미(interest)와 재능(talent)을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조차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적성과 운의 방향성은 알수 있어도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주어지는 숙명적 한계로 인한 가족사항, 교우관계, 출생

지역의 영향 및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한 인식의 전환이나, 감정의 변화 등은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며, 특히 명리학계에서는 명리사주 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연구들 중에 특히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인의 환경으로서 대운과 세운에 대한 연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명리사주분석은 사주원국과 대운·세운의 구조를 살피는 것이다. 특히 대운·세운은 삶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8] 구체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알려준다. 과거 명리학의 선행연구들이 사주원국만을 연구주제로 다루었다면, 요즘은 대운과 세운 등 개인의 환경적 측면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박성희 [9]는 세운해석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계절의 주기성과 함께 구체적인 환경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운(運)과 명(命)에 관한 몇몇 연구에서 대운과 세운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그러나 개인의 환경으로서 대운과 세운의 중요성에 비해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아 그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선행연구의 미비점들을 학문적으로 보완하면서 명리학을 제도권의 학문으로 과학화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영세 자영업자의 지속률을 보면 1년 후에 자영업업을 이탈하는 비율이 28.5%, 3년 동안 유지한 비율은 50%도 안된다 [10]. 과일 자영업 비율을 고려할 때, 자영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창업실패는 더 심각한 빈곤을 야기하기 쉬우므로 적정사업 유지를 위한 정책 및 전직 지원서비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에는 노인인구 14%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2026년에는 노인, 고령자들의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제2의 직업전환 및 재취업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진로상담의 필요성은 우리의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진로지도에 있어서 Holland 흥미·적성검사 [11]는 진로상담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입시학원,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우리나라 진로상담의 역사와 함께 실제적으로 한 세대 이상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R(실체형)·I(탐구형)·A(예술형)·S(사회형)·E(기업형)·C(관습형)이라하여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성격 및 직업적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진로상담 전문가들은 Holland 흥미·적

성검사가 서양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문화적 타당도 및 구성 타당화 연구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2]. 또한, 성별에 따른 직업흥미의 구조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한국사회에서도 대체로 R-I-A-S-E-C 원형순서 모델은 성별에 차이 없이 성격 및 직업적성을 입증한 반면, 정육각형모델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덜 적합한 모델이라고 지적하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13].

특히 고맥락 사회인 한국에서는 남녀의 성역할의 차이 및 문화적 상대성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14]. 최근, 김종학(2017) [15] 은 진로선택에 있어 문화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16-17] Holland 모델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의 직업가치관 유형을 관찰할 수 있도록 적합한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Holland 이론이 진로선택 및 결정에 대해 유형론에 입각한 매칭이론임에는 틀림이 없다 [18]. 그러나 우리나라 내담자의 직업흥미 구조에 맞게 문화적 차별성과 정서를 고려한 대안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Super [19] 는 진로발달을 전 생애-생애 공간이론(Life-span Life-space theor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 생애에 대하여 ‘기간(span)’이라는 종단적 측면과 ‘공간(space)’이라는 역할적 측면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생애 역할들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은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은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역할들의 결합과 그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따라 개인의 생애구조는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들은 진로 지속과 중단 사이의 갈림길에서 진로단절 위기와 타협하는 방법으로 직업적 포부 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탐색되었다 [20]. 이것은 아무리 직업적 흥미와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변의 처해진 환경에 의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로에 대한 종적, 횡적입장을 수렴한 진로상담 관련 검사는 다목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바람직할 것이다 [21].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안된 적절한 진로관련 검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의 특성이 중요한 작금의 교육상황에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서 처럼 각자의 재능이 중요하

며 특성화된 교육은 필요하다 [22]. 개인의 특수성은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진로상담 장면에서도 개인의 가치관 성격, 성향, 직업적성 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진로흥미·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Holland 이론과 환경으로서 중요성을 언급한 Super의 이론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명리학은 기존 서양의 성격 및 심리검사와 더불어 개인의 특별한 환경이라 할 수 있는 틀을 세부적으로 갖추고 있다. 대운·세운·월운·일운이 있다. 특히 대운과 세운은 운명학적으로 구체적인 개인의 환경을 설명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서양 진로상담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함께 Super의 말대로 환경을 감안한 진로상담의 구체적 대안으로서 활용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늘어나는 실업률과 폐업률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진로상담의 대안으로 명리사주분석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주원국상 폐업한 자영업자의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인 재성(財星)과 개인의 환경인 대운·세운의 실증적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성이 약한사주이며, 운대가 맞지 않아서 사업에 실패했음을 실증적으로 접근해 볼 것이다. Holland의 진로흥미와 적성을 사주원국의 재성구조에서, Super가 언급한 환경의 의미를 10년의 환경인 대운과 1년의 환경인 세운에서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 <연구문제1> 사주원국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2> 폐업한 자영업자의 용신이 대운·세운에서 합·형·충 되어 대운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 <연구문제3> 폐업한 자영업자의 용신이 대운·세운에서 합·형·충 되어 세운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 <연구문제4> 폐업한 자영업자의 월지가 합·형·충 되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다. 시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화로 세무서에서 공식적인 협조를 얻을 수 없었다. 가족, 친구, 지인들을 통해 비확률 표집인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최종 100명의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반드시 폐업한 경험이 있고 본인이며, 생년·월·일·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상자만을 선정하였다. 특히 명리사주분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태어난 생년·월·일·시에서 시(時)와 폐업년도를 모르는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징은 남자 41명, 여자 59명이고 업종은 요식업 25명, 유통업 14명, 건축업 8명, 제조업 4명 순이다. 폐업이유로는 사업부진 45명, 가정문제 15명, 건강 8명이다.

## 2.2 자료 처리

### 2.2.1 명리사주 분석(四柱分析) 방법

사주분석은 생·년·월·일·시 사주팔자를 바탕으로 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를 통해 인간의 생·노·병·사를 판단하는 일이다. 고전 명리이론을 바탕으로 명리사주 전문가 3명의 개별적 블라인드(Blind)방식을 통해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財星)의 구조와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합·형·충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명리 전문가들은 현재 전문적으로 명리상담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 가능하고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연구결과가 편향되거나 천차만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삼각화 방법을 채택하였다. 삼각화 방법은 캠벨(D. T. Cambell)이 제안한 연구방법으로 한 주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세가지의 조작적 정의에 입각한 자료수집 방법이다.

예컨대, 고전 명리이론을 바탕으로 명리사주 전문가 3명 중 2인이 같은 결과면 정답으로 처리하고, 3인이 서로 다른 결과는 신뢰도를 위해 정답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연구자 삼각화(triangulation)방법을 통해 충분히 분석결과를 협의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완하였다.

### 2.2.2 사주분석 예시

다음은 명리상담가 3인의 연구자 삼각화방법에서 합의 된 명리사주분석의 예시이다.

### ◎사주분석 사례 1: 신강재약 사주

1970년 03월 08일 22시 30분생(음), 坤命(女)  
사주원국(四柱原局)

비견	일간	정인	정인
癸	癸	庚	庚
亥	亥	辰	戌
겁재	겁재	정관	정관

일명 군집쟁재(群劫爭財) 사주구조로 일간이 강하고 비대하여 약한 재물을 여러 명이 다투어 빼앗으려는 구조로 재성이 약하다.

대운(大運)

73	63	53	43	33	23	13	3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33 병자(丙子)대운은 월지에서 자진합(子辰合)으로 강한 수국(水局)이 형성된다. 이는 일간을 더욱 비대하게 하므로 대운은 흉하다. 월지도 자진합으로 직업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세운(歲運): 2009년 기축년(己丑年)

기축년에는 축술형(丑戌刑)으로 용신(用神)을 형(刑)하여 흉하게 작용하였다. 40세인 2009년 식당업을 하다가 폐업하였다.

### ◎사주분석 사례 2: 신약재강 사주

1969년 04월 05일 07시 30분생(음), 乾命(男)

정관	일간	편재	편재
庚	乙	己	己
辰	未	巳	酉
정재	편재	상관	편관

재성이 정재와 편재로 혼잡된 재다신약(財多身弱) 구조로 재성이 약하다. 재물을 얻으려는 마음은 크나 큰 재물을 다루기에 일간인 나의 힘이 역부족이다.

75	65	55	45	35	25	15	5
辛	壬	癸	癸	乙	丙	丁	戊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35 을축(乙丑)대운은 월지에서 사유축(巳酉丑) 삼합(三合)으로 강한 금국(金局)이 형성되어 극신약한(極身弱) 일간을 더욱 약하게 한다. 기신(忌神)으로 대운에서 흉하게 작용하였다.

세운(歲運): 2009년 기축년(己丑年)

기축년에는 축미형(丑未刑)으로 편재를 형(刑)하고 세운 역시 사유축(巳酉丑) 삼합(三合)으로 강한 금국(金局)이 형성되어 흉하게 작용하였다. 대운과 세운 모두 기신으로, 41세인 2009년 유통업을 하다가 폐업하였다. 또한 대운과 세운이 월지 합을 하여 직업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사주분석 사례 3: 신약재약 사주

1966년 04월 17일 11시 30분생(음), 坤命(女)

정인	일간	편인	상관
壬	乙	癸	丙
午	未	巳	午
식신	편재	상관	식신

식상(食傷)이 너무 강하여 을목 일간을 과도하게 설기하고 있어 신약하다. 또한 미토인 편재는 있으나 무력하다. 신약재약(身弱財弱) 사주구조다. 재물을 다루는 일에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다.

80	70	60	50	40	30	20	10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30 경인(庚寅)대운은 인오(寅午) 반합(半合)으로 강한 화국(火局)이 형성되어 식상이 너무 비대하다. 극신약한 일간을 더욱 설기 시켜 흉하게 작용한다.

세운(歲運): 1998년 무인년(戊寅年)

무인년에는 무계합화(戊癸合火)하여 기신으로작용하였다. 월지에서도 인사신(寅巳申) 삼형살(三刑殺)이 작용하여 세운은 흉하게 작용하였다. 33세 1998년 흠폐션을 하다가 폐업을 하였다. 대운과 세운에서 월지가 형(刑)하여 직업을 변동하게 되었다.

2.2.3 양적분석

명리전문가의 질적분석을 기초로 하여 분석결과는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하고 빈도분석, 백분율로 기술통계 처리를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문제 1> 사주원국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은 약한 사주일 것이다.

Table 1. Wealth's structure N=100(%)

Wealth structure	person	%
1) weak Body weak Wealth	48	48
2) strong Body weak Wealth	29	29
3) weak Body strong Wealth	16	16
4) strong Body strong Wealth	7	7

- 1) weak Body weak Wealth: 신약재약(身弱財弱)
- 2) strong Body weak Wealth: 신강재약(身強財弱)
- 3) weak Body strong Wealth: 신약재강(身弱財強)
- 4) strong Body strong Wealth: 신강재강(身強財強)

폐업한 자영업자중 가난한 사주의 재성구조를 가지고 있는 폐업한 자영업자는 전체 100명중 신약재약(身弱財弱)한 재성구조는 48명(48%), 신강재약(身強財弱) 29명(29%), 신약재강(身弱財強) 16명(16%), 신강재강(身強財強) 7명(7%)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1>의 결과에서 신약재약, 신강재약, 신약재강은 재성이 약한사주 구조로 전체 93명(93%)을 차지하며, 신강재강은 재성이 강한사주 구조로 일명 부자 사주인데 7명(7%)으로 나타났다. 즉, 100명의 대상자중 93명(93%)이 사주원국상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인 재성(財星)이 약한 사주다.

3.2 <연구문제2> 용신이 대운·세운에서 합·형·충 되어 대운은 흉하게 작용할 것이다.

첫째, 용신의 합과 대운의 길·흉관계를 살펴보면,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합이 된 대상자는 폐업한 자영업자 100명중 56명(56%)에 해당한다. 대운이 흉한 사람은 71명(71%)이며, 대운이 길 한 대상자는 29명(29%)이다. 대운이 흉한 경우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합한 경우는 41명(41%)에 해당한다. 대운이 길하고 대운·세운에서 용신을 합한 경우는 15명(15%)에 해당한다. 대운·세운

에서 용신의 합은 대운이 길할 때보다 대운이 흉할 때 더 많았다.

Table 2. Yongshin' Hap & Deawoon condition  
N=100(%)

Deawoon	4)Deawoon· 5)Saewoon		TTL
	Yongshin		
	not Hap	Hap	
Bad	30	41	71
Good	14	15	29
TTL	44	56	100

4) Deawoon(대운): 10 years circumtance  
5) Saewoon(세운): 1 year circumtance

둘째, 용신의 형과 대운의 길·흉관 계를 살펴보면, 폐업한 자영업자 100명중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형된 대상자는 13명(13%)이다. 그 중 대운이 흉한 자는 71명(71%)이다. 대운이 길한 대상자는 29명(29%)이다. 대운이 흉한 사람 중 용신이 형이 된 사람은 8명(8%)에 해당하고, 대운이 길한데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형한 경우는 5명(5%)이다.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형은 대운이 길할 때 보다는 대운이 흉할 때가 더 많다.

Table 3. Yongshin' Hyung& Deawoon condition  
N=100(%)

Deawoon	Deawoon·Saewoon		TTL
	Yongshin		
	not Hyung	Hyung	
Bad	63	8	71
Good	24	5	29
TTL	87	13	100

셋째, 용신의 충과 대운의 길흉관계를 살펴보면, 폐업한 자영업자 총 100명중 대운과 세운에서 충인 자는 26명(26%)이다. 대운이 흉한 사람은 전체 100명중 71명(71%)에 해당하고, 대운이 길한 대상자는 100명중 29명(29%)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운과 세운에서 용신이 충하고 대운이 흉한 경우는 18명(18%)에 해당된다. 대운이 길하고 대운과 세운에서 용신이 충한 경우는 8명(8%)이다.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충도 대운이 길할 때 보다 흉할 때 더 비율이 높다.

Table 4. Yongshin' Chung & Deawoon condition  
N=100(%)

Deawoon	Deawoon·Saewoon		TTL
	Yongshin		
	not Chung	Chung	
Bad	53	18	71
Good	21	8	29
TTL	74	26	100

### 3.3 <연구문제3> 용신이 대운·세운에서 합·형·충 되어 세운은 흉하게 작용할 것이다.

첫째, 폐업한 자영업자 총 100명중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합된 대상자는 56명(56%)이다. 그 중 세운이 흉한자는 64명(64%)이고, 세운이 길한 대상자는 36명(36%)이다. 세운이 흉한 사람중 용신이 합한 사람은 32명(32%)에 해당하고 세운이 길한데,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합한 경우는 24명(24%)이다.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합(合)은 세운이 길할 때 보다는 세운이 흉할 때가 더 많다.

Table 5. Yongshin' Hap & Saewoon condition  
N=100(%)

Saewoon	Deawoon·Saewoon		TTL
	Yongshin		
	not Hap	Hap	
Bad	32	32	64
Good	12	24	36
TTL	44	56	100

둘째, 폐업한 자영업자 100명중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형된 대상자는 13명(13%)이다. 그 중 세운이 흉한자는 64명(64%)이고, 세운이 길한 대상자는 36명(36%)이다. 세운이 흉한 사람중 용신이 형한 사람은 6명(6%)에 해당하고, 세운이 길한데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형한 경우는 7명(7%)이다. 특히,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형은 세운이 흉할 때 보다는 세운이 길할 때가 더 많았다.

Table 6. Yongshin' Hyung & Saewoon condition  
N=100(%)

Saewoon	Deawoon·Saewoon		TTL
	Yongshin		
	not Hyung	Hyung	
Bad	58	6	64
Good	29	7	36
TTL	87	13	100

세째, 폐업한 자영업자 100명중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충된 대상자는 26명(26%)이다. 그 중 세운이 흥한자는 64명(64%)이고, 세운이 길한 대상자는 36명(36%)이다. 세운이 흥한 사람 중 용신이 충한 사람은 22명(22%)에 해당하고, 세운이 길한데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충한 경우는 4명(4%)이다. 용신의 충(沖)은 세운이 길할 때 보다 세운이 흥할 때가 더 많다.

Table 7. Yongshin' Chung & Saewoon condition  
N=100(%)

Saewoon	Deawoon·Saewoon		TTL
	Yongshin		
	not Chung	Chung	
Bad	42	22	64
Good	32	4	36
TTL	74	26	100

### 3.4 <연구문제4> 폐업한 자영업자의 월지가 합·형·충 될 것이다.

<연구문제4>에서 대운·세운에서 월지의 합은 폐업한 자영업자 100명중 61명(61%)이다. 월지가 형이 된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명 중 5명(5%)이다. 월지가 충이 된 사주를 가진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명 중 9명(9%)에 속한다. 월지의 합·형·충 중 합이 가장 많다.

Table 8. Woulgi condition  
N=100(%)

Woulgi condition		person	TTL
Woulgi	Hap	61	61
	Hyung	5	5
	Chung	9	9

## 4. 논의

첫째, <연구문제 1>에서 재성이 약한사주가 100명의 폐업한 자영업자중 93명을 차지했다. 자영업 종사자 사주와 재운(財運)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김경희 [23]가 사주원국상 신강재강(身弱財強), 신강재약(身強財弱), 신약재강(身弱財強), 신약재약(身弱財弱)의 순으로 재성의 구조에 의해 부의 크기가 형성 된다는 결과와 같다. 김재성 [21]은 신약사주에서 재(財)가 무재성(無財星)으로 없거나 2개이면서 무력하거나 약한 경우, 넓은 의미에서 재성의 불급(不及)으로 간주(看做)하여 흉하다고 보았다.

신약사주는 재성이 식신(食神), 상관(傷官)으로부터 생(生)을 받아 강할 때 나를 극하는 아극자(我剋者)로 작용하는 피해를 받는다. 재물을 다스리고 사업체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흉작용을 받게 된다. 신약사주는 재(財) 자체가 일간의 힘을 빼는 흉한 기신(忌神)역할을 하며, 재가 관살을 생하는 재생살(財生殺)로 금전난이나 관재소송 등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사주원국에서 일간(日干)인 사주의 주인공은 재물을 다룰 능력도 없는 사주구조로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물을 얻는 것이 어렵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신강재약이나 신약재강의 재성구조는 균형이 심하게 조화롭지 못해서 대운과 세운이 좋게 흘러도 즉, 운대가 잘 흘러도 그 재물을 얻기가 사실상 힘든 형국이다.

차와 도로로 비유하자면, 엔진이 불량한 차(약한 재성)가 도로를 달리는 상황으로 언제 시동이 꺼질지 모르는 불안한 형국으로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사업을 할 때 재성이라는 사업적 적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사업적 흥미·적성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 및 직업흥미·적성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문제 2>의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합·형·충은 대운이 길할 때 보다는 흥할 때 더 비율이 높다. 합·형·충의 비율은 합, 충, 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합의 작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은 충의 작용, 형의 작용순으로 나타났다. 용신은 일간(日干)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용신이 합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충이 되어 깨지고 형이 되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는 김재성 [24]이 중소기업 CEO의 불황시점에 관한 연구에서 대상자 143명중 대운·세운의

길·흉 작용에서 대운과 세운이 흉일 때는 100명(69.9%), 대운길·세운흉일 때는 32명(22.4%), 대운흉·세운길일 때는 11명(7.7%), 대운·세운이 길일 때는 0명(0.0%)의 결과를 얻은바 있다. 중소기업 CEO들의 경우, 본인의 대운과 세운이 모두 흉한 시기에 대부분 불황의 시점을 맞이했다는 결론과 같다.

셋째, <연구문제 3>의 결과에서는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합·충은 세운이 길할 때 보다는 흉할 때 더 비율이 높았다. 합·형·충의 비율은 합, 충, 형의 순서이다. 합의 작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은 충의 작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형의 작용은 세운이 길할 때가 흉할 때보다 더 많았다. 이것은 용신이 합·충이 되면 세운이 길하게 작용하는 것 보다 세운이 흉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용신의 합·충은 세운의 흉과 관련이 있다. 세운에서의 형의 작용력은 약하였는데, 대상자가 100명으로 표집인원이 적어 연구결과에 다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의 제한적 상황을 인정한다.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연구 대상자 확보 및 Sampling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배현배의 연구 [25] (2008)에서 논의되었듯이 대운과 세운에서 충 보다는 합의 작용을 통한 직업변동이 중요하다는 결과와 같다. 특히, 합의 작용은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직업변동 뿐만 아니라, 육친(六親)의 변화나 천간합(天干合), 지지합(地支合) 등 실증적 연구를 통해 실제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났는지 명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신뢰로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연구문제 4>에서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월지가 대운·세운에서 합한 경우가 총 100명중 61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월지의 충이 9명, 형이 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지의 합·형·충 중 합의 영향력이 가장 많았다. 월지는 진로나 직업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진로나 직업선택시 월지의 변화를 살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배현배 [22] 가 말한 사주의 대운 및 세운이 직업변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총 305명의 직업변동자중 대운이 월지를 합하는 경우, 월지합이 올 때 직장을 이동하는 비율이 충이 올 때 직장을 이동하는 비율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충보다는 합의 영향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대운·세운에서 월지가 합·형·충으로 합해서 묶이거나 파산, 파괴되고 형이 되어 일그러지면 원래의 작용력을 잃게 된다. 즉 직업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월지의 합·형·충은 직업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향후 진로나 직업을 연구대상으로 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면, 사업을 할 때 재성이라는 사업적 적성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서 대운·세운의 운로(運路)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차도 좋고 도로도 역시 좋은 상태여야 순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홍미·적성과 개인의 처해진 환경 모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다음은 연구 대상자 중 과거에 사업실패 후 현재 30여년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명리상담가가 본인의 사주팔자를 말한 내용이다.

1949년 10월 20일 18시생, 음력, 乾命(男)

편인	일간	정재	편관
辛	癸	丙	己
酉	酉	子	丑
편인	편인	비견	편관

81	71	61	51	41	31	21	11	1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나같은 경우는 돈복이 약해요. 마누라 복도 약하구. 여가 병화(丙火)가 돈도되고 남자에게 여자도 되잖아요? 재(財)가 돈도되고 여자도 되고. 그런데 만약 병오월(丙午月)과 겹으면 돈이 많죠? 그런데 자월(子月)에 떠있는 병화가 힘을 얼마나 받겠어요? 힘을 못받지. 그러니까 재물복이 약하다고 보면 되요. 여복도 약하고. 자수(子水)가 유금(酉金)을 보니까. 그때 사회적 격(格)이 살아나거든요? 문서가 살아나고. 그런데 껍데기는 화려한데 실속은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임신(壬申)대운에 망했어요. 임신대운이 겁재(劫財) 대운이 아닙니까? 겁재 대운에 돈이 안 벌려! 돈이.

옛날에 내가 울지로 00가에서 종업원이 60명 가까이 됐어요. 좀써롱을 크게 했어요. 그랬는데 전두환시절이라 데모를 했다하면 바로 우리가게 앞에서들 하는거야. 이



제나 저제나 눈오면 안 하려나? 했는데... 게다가 신금(申金)대운에 문서의 고정지로 문서가 고정지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응? 축년(丑年)에 완전히 거들넌거지. 고정지니까. 특히 임신(壬申)대운은 겁재대운에 병임충(丙壬冲)으로 재(財)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약한 재인데, 재를 때려버리니까 그냥 떠나는 거야! 돈도 떠나고, 마누라도 떠나고, 사주에 이렇게 다 적어져 있어요. 이걸 몰라서 그렇지. 내가 살아온 과거를 비추어 보면 다 맞아요.

위의 사례는 사업운이 온다해도 자신의 재성구조와 10년의 대운, 1년의 세운의 환경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운명론적 결과만 운운하여 폐업시기를 예측하는 일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진로상담은 단순히 직업을 알선하는 차원을 넘어서 진로를 결정하기까지 내담자의 미해결된 문제들까지도 다루어야만 한다. 사업을 실패했거나 다시 펼쳐야만 하는 상황, 좌절과 포기해야만 했던 이유, 무기력 등 본인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심리적 문제들을 숙명론적(宿命論的) 해석과 함께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숙명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힘든 폐업시기를 겪어 낼 수 있었던 긍정의 힘은 무엇이며, 지금 하는 일에 끼친 영향,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를 겪고 난 후 얻게 된 의미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명리사주분석의 숙명론적 해석과 함께 긍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서양의 상담적 접근방법을 접목한 질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실제적 상담으로 이끌지 못한 부분은 연구의 한계로 남긴다. 장차 상담학과나 심리치료학과 차원에서도 명리사주분석을 상담도구로 활용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을 기대한다.

정신과 전문의며, 정신역동치료를 발전시킨 이동식 박사 [26] 는 동양의 사상에서 새로운 상담 기술들이 나오기를 언급하였다. 현존 서양의 상담지도 이론들은 주로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 양상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가족주의 문화권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영창 [27] 도 이미 기존의 진로지도 이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명리학의 직업적성론을 응용, 발전시킬 것을 말한 바 있다.

건축가는 명리학의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중화론(中和論)을 한옥의 설계도면으로 옮겼다 [28] . 한의사는

사상체질에 적용시켜 환자의 치료에 응용하고 있다 [29] . 연구자는 명리학이라는 학문속에 상담으로 접목시킬 많은 소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여기서는 재성과 대운·세운만을 살펴 보았으나, 비겁(比劫), 식상(食傷), 관성(官星), 인성(印星) 등 육친(六親)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生·老·病·死)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개인상담에 필요한 기초 정보와 함께 상담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명리사주분석이 직업적성과 더불어 개인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서양의 Holland나 Super의 진로상담에 대한 이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명리학이 긍정적 인식하에서 제도권의 연구로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진로상담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작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은 학문적 날개짓을 통해 명리학이 장차 상담 분야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의 실업률과 폐업률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과학화된 실증적 학문으로 인정받고 진로상담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실용화 될 수 있는 기초가 되길 바란다.

## References

- [1] C. J. Choi, "A study on the Fortune of Myungrihak", Graduate School of Oriental Studies Wonkwang University, pp.6-8, 2013.
- [2] S. S. Choi., "Study on Methodology of Resident-specific Design based on Science of "Four Pillars"", *Journal of Digital Design*, Vol.10, No.4, pp.119-132, 2010.
- [3] K. H. Kim.,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 of the 10 Elements in the Theory of 4 Pillars Myeongri and the Character Psychology in Enneagram", Department of Future Forecast Studies Graduate School of DongBang University, pp.47-49, 2008.
- [4] B. K. Song., "Research on schizophrenia based on Myungli theory",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pp.92-93, 2006.
- [5] K. M. Na.,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ipsung of Saju and Learning Flow", Department of Kukhak Major in Myongri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pp.64-66, 2014.
- [6] S. H. Park., "A study of Saju-myungri the Sayun identification method", Department of future prediction in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pp.69-87, 2013.
- [7] K. S.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priority Aptitude Test Using the Myong-li Theory", Major in Future Social Education Korea International Culture University of Graduate, pp.207-216, 2011.
- [8] B. S. Kim, "Myungri Theory", Seoul: Chang Hea, 2009.

- [9] S. H. Park, "A study of Saju-myungri the Sayun identification method", Department of future prediction in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pp.69-87, 2013.
- [10] Statistics Korea, "Employment Tendency", 2014.
- [11] Holland, J. L. *"The psychology of vocational choice"*, Waltham. MA: Blaisdell, 1966.
- [12] J. T. Kim, M. J. Kim, H. S. Sim, "A Study of Korean Standardization of Strong Interest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iatric*, Vol.16, No.3, pp.383-405, 2004.
- [13] H. Kim, "Applicability of Holland's Vocational Interest Model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8, No.2, pp.603-619, 2007.
- [14] M. H. Hwang, E. S. Lee, S. K. Yo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areer Barriers Scal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 ing, for Female Adolescents*, Vol.6, No.4, pp.1205-1223, 2005.
- [15] J. H.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Work Values Scale for University Student based on Holland's Vocational Personality Type",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pp.116-124, 2017.
- [16] N. A. Fouad, Cross Cultural Vocational Assess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2, No.1, pp.4-13, 1993.  
DOI: <https://dx.doi.org/10.1002/j.2161-0045.1993.tb00240.x>
- [17] I. Gati, M. Krausz, S. H. Osipow,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3, No.4, pp.510-526, 1996.  
DOI: <https://dx.doi.org/10.1037/0022-0167.43.4.510>
- [18] B. H. Kim, J. K. Lee, H. S. Yoo, M. H. Hwa ng, Y. J. Gong, J. H. Son, H. Y. Kang, J. H. Kim, J. Y. Yoo, E. M. Lim, E. R. Son., "Theory of Career Counseling", pp.37-99, Seoul; Hakgisa, 2010.
- [19] D. E. Super, "Career and life development Design careers: Counseling to enhance education", *work and leisure*, pp.27-53, 1983.
- [20] Y. J. Choi, K. H. Kim, "Concept Mapping the Highly Educated and Married Women's Experience on Crisis of Career Interruption-for Comparing Career Women with Housewiveshad Experienced Career Interrup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8, No.3, pp.1031-1045, 2007.  
DOI: <https://dx.doi.org/10.15703/kjc.8.3.200709.1031>
- [21] E. S. Kim, "Carrer Search for School Counsellor", *Professional School Counsellor Qualification Training*, Vol.1, No.2, pp.31-40, 2014.
- [22] S. B. Kim,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aching-Learning Program Based on Multifil Intelligences Theory and Analysis of Its Effects", Develop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pp.119-122, 2004.
- [23] K. H. Kim, "A study on the Interaction Between Saju of Self-employed and their and their Fortun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Cultural Kyonggi University, pp.63-65, 2006.
- [24] J. S. Kim, "A study about small-& Medi um-sized Business CEO's DepressIon Time on Myungri Theory", Graduate School of Oriental Studies Wonkwang University, pp.166-168, 2005.
- [25] H. B. Bae, "A study about The Effect of the decade's Fortune and Year's Fortune of Saju Individual's Job Change",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pp.44-58, 2008.
- [26] D. S. Lee, "Meeting of Oriental and Western Approaches", The 9th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n University Counseling Association, Seoul: the Korean University Counseling Association, pp.5-327, 1986.
- [27] Y. C. Park.,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Complemented by Myungri-Theory in the Career Counseling,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pp.143-146, 2011.
- [28] S. S. Choi, "A Study on the Design Methodology of the Multi Therapy Based on the Yin-yang five elements theory - Focusing on 'Tae gwa' and 'Bul geup' of the Yin-yang five elements theory by the Four Pillars of Destiny -", *Journal of Digital Design Council*, Vol.14, No.4, pp.991-1006, 2014.
- [29] C. G. Jeong, "A study on the Revelation of the Symptom by Major Organ Specific Severe Disrases and Classification by the Science of Myung-Ri",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pp.42-60, 2002.

하 은 희(Eun-Hee Ha)

[정회원]



- 2015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교육학 석사)
- 2018년 8월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수료)
- 2015년 7월 ~ 현재 : 국방부 해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관심분야>

상담심리, 명리학, 마음챙김, 군상담

김 성 봉(Sung-Bong Kim)

[정회원]



- 1994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제주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도박중독, 긍정심리학, 마음챙김